

< 그래도, 그래도. >

각본 이나겸

< 기획의도 >

대개 사람들은 우울에 관한 문제들을 '할 일이 없으니'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다가올까?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두려운 그들의 이야기. 아닌 듯 하지만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를 받곤 다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

< 로그라인 >

누군가의 사랑이 절실한 강민, 친했던 친구들과 별 거 아닌 이유로 멀어져 혼자가 된 연우, 도박을 일삼는 엄마에게 차이지만 선생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민권은 다함께 마음의 짐을 덜어놓으며, 다시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 시놉시스 >

일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부모님으로 인해 곁에 누군가가 있어주길 원하지만 성숙한 아이로 자라나야 한다는 생각에 아픔을 티내지 못하는 강민은 항상 학교 옥상에 올라가 하늘 아래에서 하늘이 이불로 덮어주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위로를 받는다. 강민의 유일한 친구인 정희는 묵묵하게 곁에 있어주지만, 강민은 계속 우울한 모습을 보인다. 강민의 담임인 민권은 도박을 일삼는 엄마때문에 괴롭지만 선생이라는 신분때문에 학생들을 걱정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 그러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와 친구들에게 돈이 많다고한 거짓말을 들켜 따돌림을 당하던 연우를 만난 강민은 함께 옥상에 누워 위로를 받고, 연우와 친밀한 관계가 된다. 민권은 그런 연우와 강민의 모습을 보며 모방하고, 작은 위로를 얻으며, 각자의 아픔을 가졌던 그들은 마음의 짐을 덜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 인물소개 >

유강민(17,남)

부모님과 의 문제, 돈문제 등 여러가지로 힘들어하며 세상을 두려워한다. 옥상에서 한없이 흘러가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며,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

김정희(17,여)

강민의 친구. 강민을 위해주려고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정연우(19,여)

친구들을 따라 돈이 많은 척 하며 지내다 들켜버려 혼자가 된 인물. 세상을 바라보며 소리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강민을 만나 위로를 받게된다.

서민권(27,남)

처음 담임을 맡게 된 선생. 항상 도박을 하며 돈을 꺾가는 엄마때문에 골머리를 앓으며 학생들까지 케어해야하는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강민과 연우가 살아가는 모습을 모방하며 작은 위로를 얻는다.

S#1 / 학교 옥상 / 골든타임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 강민.
고민이 많은 표정으로, 묵묵하게 노을만을 바라본다.
하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강민은 하늘만을 바라본다.
휴대폰을 열자, 한달동안 들어오지 못한다는 아버지의 문자가 보인다.
바닥에 누워서 해지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강민.
강민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낀다.
그때, 뒤에서 경비아저씨가 문을 연다.
경비 학생! 거기서 뭐해?
강민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일어난다) 아...
경비 문 잠궜야 해. 나와.

풀려있는 강민의 신발끈.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실내로 들어가는 강민.
그런 강민을 바라보다 문을 잠그는 경비아저씨.
어느새 다 사라져가는 해.
제목, < 그래도, 그래도. >

S#2 / 복도 / 오후

시끌시끌한 복도,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있는 선생님들.
민권 강민이가요?
선생1 응... 선생님 첫 담임인데 힘들겠다.
(눈치를 보며 소곤거린다) 원래 강민이같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
선생2 다 이겨내야죠~ 선생 생활하다보면 한두명 있는것도 아니고.
선생1 씩! 조용!
민권 하하...

그때, 멀리서 지나가는 강민.
강민을 보자마자 선생님들에게 인사하곤 강민에게 뛰어가는 민권.
민권 (눈치보며)아,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인사하곤) 강민아!

아무 말 없이 민권을 바라보는 강민.
민권 (머뭇거리며) 아, 그... 수련회! 부모님 동의서... 너만 안냈길래.
강민 (어색하게 웃으며) 아.. 하하.

어색한 기류가 흐른다.
강민 (머뭇거리며) 빨리 낼게요.
민권 어! 그래!

강민은 화장실로 들어간다.
민권은 주춤거리다 이내 다시 교무실로 돌아간다.

S#3 / 교실 / 오후

교실에 들어온 강민.
학생들은 신경쓰지않고 떠들고있다.
자리에 앉은 강민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구깃구깃한 수련회 부모님 동의서를 꺼낸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글귀에 밑줄을 치곤, 부모님 서명란까지 써내린다.
펜을 탁 놓곤, 의자에 기대는 강민.
수업 종이 치고, 강민 옆에 와 앉는 정희.

정희 (언짢은 표정으로) 유강민.
강민 어?
정희 너 뭘 했길래 쌤들이 너 뒷담까냐?
강민 나?... (고민하며) 아무것도 안했는데?
... 잘못 들은거 아니야?
정희 뭐래. 존나 잘들리던데.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선생1.

선생1 애들아 안뇽~
정희 (강민에게 속삭이며) 저사람도 너 까던데.
강민 옹?

선생1은 강민을 유심하게 바라본다.

선생1과 눈을 마주치다가 눈을 돌리는 강민.

선생1은 한숨을 쉬며 짐을 푼다.

선생1 애들아, 내가 생활안전부 선생님이라 말하는건데...
위험한 행동은 하면 안돼, 선생님들 사이에 문제되고있어.
학생1 무슨 문제요?
선생1 ... 술담배를 한다던가, 가출을 한다던가...
(강민을 힐끗 바라보며) 옥상에 올라간다던가...
학생2 너무 만화에서만 나오는거 아니에요?

싱긋 웃으며 다시 수업 준비를 하는 선생1.

강민은 표정을 살짝 찡그린다.

S#4 / 학교 옥상 / 오후

옥상으로 향하는 강민.

옥상 문을 열려던 찰나, 옥상 벽에 기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연우를 본다.

머뭇거리다 이내 문을 열고 옥상으로 들어가는 강민.

연우는 강민에게 눈길조차 주지않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본다.

진한 화장, 짧은 치마, 누가봐도 양아치처럼 보이는 행색에 멀리 떨어져 하늘을 보는 강민.

정적이 흐르던 찰나, 입을 떼는 연우.

연우 아, 이 씨발.
(괴성을 지르며) 아!!! 개 씨~발년들아!!!

놀라서 연우를 바라보는 강민.

연우 (인기척을 느끼며 고개를 돌리곤) 오우~...

바로 옥상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는 연우.

강민은 도대체 저게 뭐냐는 표정으로 연우가 간 자리를 바라본다.

그때, 아래에서 강민을 바라보며 소리치는 경비아저씨.

경비 학생!!! 뭐하는거야!!!

강민은 경비아저씨를 바라보다, 이내 실내로 뛰어들어간다.

S#5 / 구석 계단 / 아침

멀리서 들리는 시끌벅적한 학생들의 목소리.
강민은 홀로 샌드위치를 까먹고있다.
그때, 연우가 계단으로 걸어오다 강민을 보곤 멈춘다.

연우 어?

다시 복도쪽으로 몸을 숨기는 연우.
슬쩍 다시 몸을 내민다.

연우 너 어제 개지?

연우를 쳐다보며 샌드위치를 우물우물 먹는 강민.

연우 (벽을 긁으며) 어이고 씨발, 이제 1학년까지 말을 씹네.
강민 (샌드위치를 꿀꺽 삼키며) 아뇨, 그게 아니라... 입에 음식이 있어서...

연우는 강민을 째려보다가 강민 옆에 앉는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창문 너머 풍경을 바라본다.

연우 너도 죽고싶어?
강민 (깜짝 놀라며) 예?
연우 옥상에서 뭐했냐?
강민 풍경... 감상?

연우는 표정을 찌푸리며 다시 앞을 바라본다.
한숨을 푹 쉬는 연우.
강민은 마지막 한입을 먹고는 비닐을 구긴다.
연우를 바라보는 강민, 그런 강민을 연우가 쳐다보자, 강민은 눈을 돌린다.

연우 허이고, 왜?
강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묵묵히 강민을 쳐다보다 고개를 돌리는 연우.
둘은 아무 말 없이 종이 칠때까지 앉아있다.

S#6 / 연우 교실 / 조례시간

교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는 연우.
다리를 꼬고, 책상 다리를 툭툭 치며 불편한 듯 똥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본다.
그때, 들으라는 듯 크게 들려오는 연우를 욕하는 말들.

학생3(V.O) 저것도 짬 아니야?
학생4(V.O) 다 짬이겠지. 인생이 구란데.

학생들의 킥킥 웃음소리.
연우는 지겨운 듯 표정을 찡그리곤 의자 밑으로 발을 숨긴다.
계속되는 웃음소리와 자신을 욕하는 말들에, 연우에게 들려오는 이명.
연우는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곤 고개를 숙인다.

학생3(V.O) 엄마가 없어서 교육을 못받은게 아닐까?

순간 멈추는 이명소리.
거의 울 듯 표정이 바뀐 연우는 천천히 일어난다.
한심한 듯 연우를 바라보고있는 학생들.
책상위에 올려져있는 교과서를 들고 학생들에게 걸어간다.

연우 야.

가만히 연우를 째려보는 학생들.

연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피식 웃더니 이내 귓속말을 하며 연우를 비웃는 학생들.
연우는 이제 참지 못하겠다는 듯 학생3의 머리를 교과서로 내리친다.
연우 (계속 때리며) 야, 이. 씨.발 년.아.
학생4 (연우를 때어내려하며) 야이 미친년아!!
학생3 (머리를 팔로 막으며) 아!! 씨발!!

상황을 구경하는 학생들로 소란스러워진 교실과 복도.
그때, 선생1이 뛰어들어오고, 연우와 학생3을 떼어낸다.
연우를 끌고 나가는 선생1.
따가운 시선과 말소리들에 다시 이명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연우.

S#7 / 교실 / 수업시간, 오후

수업을 듣고있는 학생들.
조용한 교실에는 필기소리만이 울려퍼진다.
그때, 조용히 교실 뒷문을 여는 민권.
민권 (조심스럽게) 아, 선생님. 혹시 학생 한명만 잠시 데려가도 괜찮을까요..?
선생2 아, 네, 뭐...

강민에게 손짓하는 민권.
정희 (속삭이며) 너 또 뭐했냐?

영문모를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강민.
조심히 일어나며, 민권을 따라 나간다.
강민을 쳐다보다, 이내 다시 고개를 돌려 수업을 듣는 학생들.

S#8 / 복도-교실 / 수업시간, 오후

머뭇대고, 우물쭈물하며 강민을 바라보는 민권.
강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민권을 바라본다.
민권 (조심스럽게) 강민아.
강민 ...네?
민권 혹시... 요즘 무슨 일 있니?
강민 에?
민권 그... 선생님이, 네가 옥상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위험하니까... 혹시나 무슨 일 있나 싶어서 그러지.

입술을 깨물며 바닥으로 눈을 내리까는 강민.
민권은 어쩔 줄 몰라하며 그런 강민을 바라본다.
민권 무슨 일 있니?
강민 ... 아니요.
민권 진짜로? 아무 일도 없는거 맞지?
강민네
민권 ...그래... 수업 들어가.

민권은 강민의 어깨를 다독여준다.
강민도 억지로 씩 웃곤, 다시 교실로 들어간다.
강민이 들어오자 학생들은 강민을 잠시 쳐다보곤, 다시 고개를 돌려 수업을 듣는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강민.
신발끈이 풀려있다.

S#9 / 연우 교실 / 쉬는시간, 오후

수업 종이 치고, 멍때리다 종소리를 듣고 놀라는 연우.
풀린 신발끈을 멍하니 바라본다.
바닥으로 허리를 숙여 신발끈을 묶으려던 찰나, 들려오는 학생들의 목소리.

학생3(V.O) 머리 존나아파.
학생4(V.O) 태생이 개잖아~

킁킁 비웃는 소리.
신발끈을 묶으려던 연우는 책상 위로 몸을 일으키곤 기지개를 핀다.
앞에서 비웃던 친구들은 교실 밖으로 사라진지 오래.
연우는 책상 서랍을 뒤지고, 오래된 중간고사 성적표를 꺼낸다.
온통 2등급으로 가득 차있는 성적표.
기말고사 성적표를 꺼내자, 5-6등급으로 떨어진 성적이 보인다.
가방에서 문제집을 꺼내 미친듯이 풀기 시작하는 연우.
이내 문제집을 연필로 미친듯이 벅벅 긁고는 일어나 교실 밖으로 나간다.

S#10 / 학교 옥상 / 오후

옥상문을 열고, 옥상 벽에 기대 아래를 바라보는 연우.
바닥은 저 멀리, 아득한곳에 위치해있다.
생각이 많은 듯 두손으로 머리를 털며 쓸어넘기는 연우.
하늘은 드넓게 펼쳐져있다.
친구들과 맞춘듯한 키링을 꺼내 바라보는 연우.
연우, 서현, 예린. 세 친구들의 이름이 마스킹테이프 위 하트로 가득히 적혀있다.
키링을 주머니에 신경질적으로 집어넣곤 숨을 고르는 연우.

연우 (토해내듯) 이~ 씨발!!
 (울음을 참는 듯) 개.. 개 씨발년들아!!

한숨을 푹 쉬며 바닥을 바라보는 연우.
그때, 인기척이 느껴져 오른쪽을 바라본다.
그런 연우를 바라보고있는 강민.

연우 또야?
강민 (멋쩍은 듯) ...헛.

목을 가다듬는 강민.
강민 (하늘을 바라보며) 개...같은 세상아!!!

연우는 눈물이 그렇그렇 고인채로 강민을 바라보다, 어이없다는 듯 숨을 토해내며 웃는다.
연우 그게 뭐야... (깔깔 웃다 이내 웃음을 푼 그친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 참.

강민은 그런 연우를 바라보다 이내 다시 하늘을 바라본다.
묵묵하게 서있던 강민은 옥상 바닥에 눕는다.

연우 ...뭐해?
강민 선배도 해보세요.

연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강민을 한참 바라보다,
이내 강민 옆에 누워 하늘을 바라본다.
연우 ... 그냥 보는게 편하지 않아? 바닥 존나 더러운데.
강민 이불 같잖아요.

강민을 바라보던 연우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본다.
눈을 감는 둘. 하늘은 그들을 덮어주듯 천천히 흘러간다.

S#11 / 옥상 앞 복도 / 오후

옥상에 누워 눈을 감고있는 강민과 연우를 바라보고있는 민권.
민권은 돌을 뺏히 바라보고, 그때 걸려오는 전화.

민권 (전화를 받으며) 여보세요?...
... (머리를 쓸어 넘기며) 엄마... 그만 좀... 아니, 도박 좀 그만해요.
... 선생 월급이 얼마나 썰다고 그래, 응?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소리지른다)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민권 앞으로 지나가는 학생들.
민권은 목소리를 죽이며, 학생들에게 인사하곤 사라진다.

S#12 / 교무실 / 밤

홀로 불꺼진 교무실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는 민권.
계속해서 오는 전화소리와, 메세지 알림.
점점 천장이 가까워져 짓눌려지는 기분에 황급히 자세를 고쳐 앉는다.
엄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메세지.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이내 민권은 전화를 받는다.

민권 ...여보세요.
민권 모(V.O) 야. 너 너무한거 아니니?
하나뿐인 엄마가 돈 좀 달라는데. 키워준 은혜도 몰라?
민권 (한숨을 쉬며) 얼마를 주든 자꾸 도박으로 날리잖아요.
좀... 그만 좀 해요...
민권 모(V.O) 야~ 내가 너 키울때 더 많이 나갔어. 너도 이제 돈버니까 좀 갚아야...
민권 (말을 끊으며) 얼마데? 주면 되잖아. 다 줄테니까 연락하지 마!

민권은 전화를 끊어버린다.
휴대폰을 탁 내려놓고, 다시 의자에 기대 천장을 바라보는 민권.
머리를 두손으로 쓸어넘기며, 정신을 차리려는 듯 불을 살짝씩 여러번 친다.
그때, 조용한 교무실에 적나라하게 울리는 메세지소리.
휴대폰을 들어 뺏히 바라보는 민권
천만원 정도만 보내라는 엄마의 메세지를 보곤 휴대폰을 소리내어 덮는다.

S#13 / 몽타주 / *

한없이 흘러가는 차들과 풍경.
민권은 학생들 앞에서 조례를 하고, 걸려오는 엄마의 전화를 보곤 표정을 구긴다.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강민은 수업을 마치는 종이 치자 일어나고,
정희는 그런 강민의 자리에 조용히 간식을 두고 일어난다.
연우는 턱을 괴고, 가방을 매고 자신을 지나쳐가는 학생들을 멍하니 바라본다.
이내 신발끈을 풀린 신발끈을 제대로 매고, 가방을 챙겨 교실 밖으로 나가는 연우.
강민, 정희, 연우는 나란히 학교 밖으로 걸어간다.
잠깐 멈춰 뒤돌아 옥상을 바라보는 강민, 붙잡으며 한대 거하게 패는 정희.

그런 돌을 보며 씩 웃고, 정희가 웃었다며 손가락질하자 짜증나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는 연우.
뒤에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고있는 민권.
해가 지기 시작하자, 민권은 옥상으로 올라간다.
하늘은 민권을 감싸고, 민권은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본다.
이내 옥상 바닥에 누운 민권은 눈을 감고 바람을 즐긴다.
깜깜한 밤이 되고, 눈물을 훔치는 민권. 실내로 들어간다.

S#14 / 교실 / 오후

수업을 듣고있는 강민과 정희.
정희는 필기를 하다 펜을 살짝 내려놓곤 강민에게 묻는다.
정희 야, 너 연우언니랑 사귀냐?
강민 (표정을 마구 찡그리며) 잉??
정희 아닌가보네. 허.
강민 이상한 소리 하지마라.

침묵이 흐르는 돌.
필기소리만 교실을 가득 채운다.
피식 웃는 돌을 힐끗 바라보는 민권.

S#15 / 연우 교실 / 오후

열심히 필기를 하고 펜을 탁 내려놓는 연우.
선생2에게 종이를 가져다 내자, 선생2는 씩 웃는다.
선생2 연우~ 이번 수행 백점!

푸르르르, 소리를 내며 자리에 앉은 연우는 학생 3,4의 시선을 느낀다.
학생 3,4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연우를 바라보고,
연우는 씩 웃으며 선생님에게 안보이게 한손으로 가리곤 엇을 날린다.

S#16 / 학교 옥상 / 오후

옥상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권.
민권은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레 바닥에 눕는다.
하늘을 보며 눈을 감는 그때,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뜬 민권.
양쪽에 누워있는 연우와 강민을 보곤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킨다.
강민 (눈을 감곤) 왜 여기 계세요?
연우 (눈을 감곤) 그냥 누우세요.
민권 그래도, 그...
강민 (눈을 감곤) 그래도, 하늘은 봐야죠.
연우 (눈을 감곤) 네~ 그래도요.
강민 (눈을 감곤) 가끔은 봐도 돼요~

민권은 황당한듯 양쪽을 번갈아 쳐다보다, 강민의 말에 입술을 질끈 깨물곤 다시 눕는다.
흘러가는 하늘과, 여전히 누워있는 세사람.
이를 가만히 쳐다보고있는 정희와,
하염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모습들.
끊임없이 지나가는 차들, 바다의 윤슬, 걸어가는 사람들과, 그들을 비추는 가로등.

S#17 / 몽타주 / *

수업이 마치자마자 가방을 들고 벌떡 일어나 복도로 나가는 연우.
주위 시선은 신경쓰지않고 신나게 계단을 내려간다.
강민은 정희와 함께 가방을 매곤 복도로 나가고, 웃으며 걸어오는 연우를 마주한다.
종례를 끝내고 출석부를 덮곤 고개를 돌린 민권은 셋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짓는다.
셋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민권은 계단 위를 바라보다, 엄마에게 온 전화를 끊고 엄마를 차단한다.
숨을 크게 내쉬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민권.
정문을 나가는 셋의 뒷모습과, 그들을 감싸는듯한 하늘.